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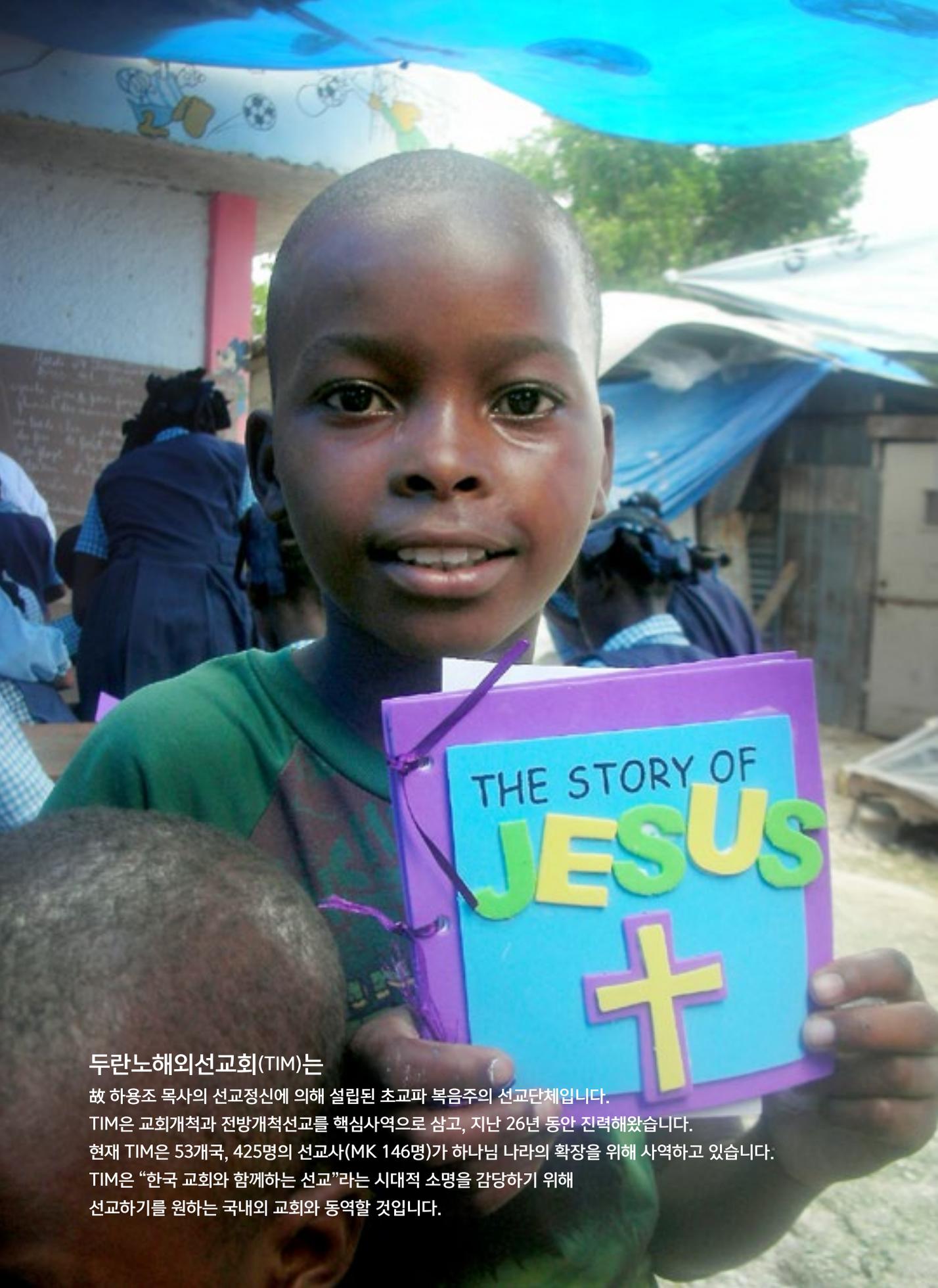
열방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SPRING, 2019
VOL. 21

SPECIAL ISSUE

"마음을 전파하라"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TIM은 교회개혁과 전방개혁선교를 핵심사역으로 삼고, 지난 26년 동안 진력해왔습니다.

현재 TIM은 53개국, 425명의 선교사(MK 146명)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TIM은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교회와 동역할 것입니다.

SPECIAL ISSUE

〈2019년 신년주일예배〉
말씀을 전파하라 2
이재훈 목사

〈2019년 상반기 TIM 사역방향〉
변화의 시대 8
블라디미르 송 선교사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TIMA)〉
선교비전으로 하나되어 복음을 선포하다! 10
강일영 선교사

〈ACTS29 VISION VILLAGE〉
선교훈련 학교의 변화와 도전 14
훈련팀

〈은누리교회 대학청년 선교 동원〉
FA,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16
김승수 목사



열방에서

〈중남미 사역현장〉
영적 변화, 오직 말씀으로 20
정진모, 정혜진 선교사

〈중남미 사역현장〉
복음의 개방을 위한 씨 뿌린 자 25
차경선, 차정인 선교사



본부에서

선교적교회 코칭 워크샵에 다녀와서 30
윤정노 선교사

〈2019년 상반기 단기선교사 훈련간증〉
선교로의 초대 33
김혜진 34기 훈련생

〈본국 선교사 본부 사역 간증〉
가족이 되는 시간 35
김단비 선교사

〈본부 선교사 본부 사역 간증〉
영적 채움과 심, 격려와 위로의 시간 36
김한수 선교사

〈MK이야기〉
MK라 부르고, 동역자라 이해한다 38
MK 김신

〈MK 겨울 소풍〉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첫 소풍 41
사라 선교사

본부소식 43

후원교회(기관) 45



SPECIAL
ISSUE

2019년 신년주일예배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1~5)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 대표



2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잘못된 것일 때도 많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시절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성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때, 아이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을 때 성문 앞에 있던 네 명의 나병환자들이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성에 있어도 죽을 것이 뻔한데,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만약 아람 군대가 항복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성 안에서 끔찍하게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람 군대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람 군대 진영에 펼쳐진 먹을 것, 입을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 안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왕하 7:9)

동족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을 알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성에 가서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들이 침묵했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 모두가 알아야 할 기쁜 소식이 있는데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병환자들이 느꼈던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병 환자와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 9:16).

나병환자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은 의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은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벌을 받을까 두려운 것보다 모두가 들어야 하는 소식,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때 오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복음에 대한 침묵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 이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침묵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 이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가끔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필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굶주린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필요를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은 참된 선교로서 불충분합니다. 선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기에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포사이스(P. T. Forsyth)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 역들의 약점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무심코 드러낸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장 심각한 필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보다는 못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에는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의 필요를 내가 도와야겠다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헌신인 것입니다.

확신있는 복음전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의무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그 기쁘고 복된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결과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에는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살전 1:5).

‘확신’이라는 단어는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확신이란 믿음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가뒤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흘러 넘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기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온누리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흘러 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A.D.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됩니다. 순교 직전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확신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딤후 1:11~12).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확신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확신을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와 임박한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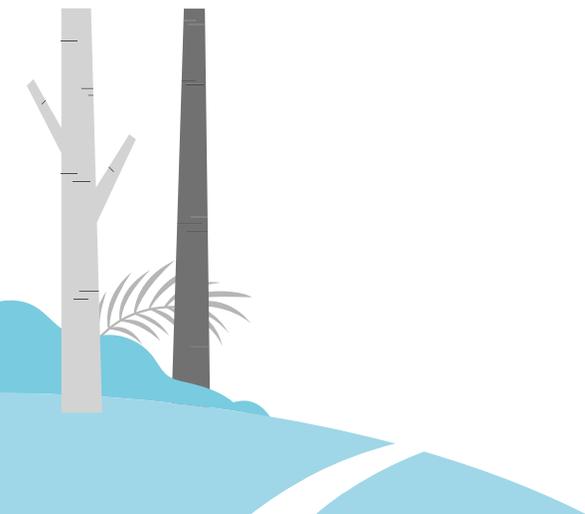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딤후 4:2)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절박하게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끈기 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전파는 절박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잡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하고, 어떤 이들은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지만, 죄에 빠진 이들은 때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말씀 전파를 엄숙히 명령했습니까? 그 이유는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딤후 4:1)

말씀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박한 심판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심판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대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이 막 시작되었고, 유대 지도자들과 완전히 결탁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네로의 핍박에 의한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를 사형에 처할 수는 있으나 다가오는 심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에서는 단 1초도 단축시킬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고 있지만 장차 오는 시대에는 더욱 복음을 훼방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 사람들은 더욱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교회를 핍박할 것을 알았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딤후 4:3~4)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분위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이념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특징들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이념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합니까? 둘째, 전쟁 소식과 소문이 도처에 등장합니다. 셋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과거 1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빈도가 그 10년 이전 1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 훨씬 많습니다. 넷째,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중국, 인도 등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째,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 반항적이며,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이념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역을 마치고 1974년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심판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말씀 전파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인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종말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일입니다.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SPECIAL
ISSUE

2019년 상반기 TIM 사역방향 변화의 시대

블라디미르 송 선교사
TIM 총무(총괄,지역)

온누리교회는 전 해와 새 해에 걸쳐서 40일의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2019년 우리 개인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운행하심을 기대하며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의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 해 초까지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는 온누리선교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섬겼던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으로 출국을 하거나, 선제적으로 철수를 요청하여서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이들을

2019년 전반기 TIM에서 감당할 몇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안내드립니다.

1 TIM의 법인화 작업

TIM은 이전까지 NGO단체의 법인으로 사역을 진행해오던 것을 이제는 책임성 있는 선교단체로서의 법인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2 비자발적 철수와 전략적 재배치

비자발적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어렵지만, 도리어 교회와 TIM은 선교 환경의 변화와 team 사역을 위한 전략적 재배치의 기회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지원과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의 자체적 team모임, 리서치의 시간을 진행 중입니다.

3 TIM Japan 사무실 개소식 및 FA 16기 선교사 훈련과 파송

FA 16기는 23명의 대학 청년들이 합숙하며 훈련을 갖았습니다. 기존의 I국, N국 외에 일본이 추가됨에 따라 TIM Japan을 통한 온누리교회의 일본융합 선교의 platform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오사카에 TIM Japan의 사무실이 개척이 되어 질 것입니다.

4 IMB-TIM 인터코디컨설파이션

IMB의 현장 중심의 사역과 선교책무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TIM의 RC, 본부리더십들과 나눔의 시간, 현장 사역지를 방문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TIM의 현장성의 강화와 구성원의 상호책무들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위해서 교회와 단체는 분주하고 발 빠르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심리검사, 숙소와 디브리핑, 재배치를 위한 논의의 자리들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으로 오는 아픔도 있지만, 지금까지 섬겨 온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오는 세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교회와 함께 TIM과 선교사님들에게 전략적 재배치의 기회의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역량의 개발과 공동체를 알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벧전 5장 6~11절)

5 본국사역 선교사 본부사역 3차 진행

2019년에는 현장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 사역에 임하시기에 3차에 걸쳐 각 4주씩 본부사역이 진행됩니다. 지난 3월 1차 본부사역을 통해 선교사는 본부와 보다 깊은 소통과 전략적 나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6 영역별전략회의

2019년에는 권역별, 지역별 전략회의는 진행되어지지 않고, RC 주도하에 영역별로 전략회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반기에는 인니·인차/힌두·공산권, 소아시아 지역 연합 수련회와 페르시아창 선교사님들의 전략회의가 진행됩니다. RC주도의 전략회의에 본부에서는 담당 팀장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사역 방향을 기획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7 KGMLF

6월 초, GMLF국제단체가 ‘멤버케어’를 주제로 개최하는 한국세계선교리더십컨퍼런스(KGMLF)에는 2차 본부사역 선교사님들이 3박 4일간 행사를 섬기며, 함께 참여합니다. 컨퍼런스는 국내외 멤버케어 리더십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TIMIA) 선교비전으로 하나되어 복음을 선포하다!

강일영 선교사

TIMA 총무

2003년 ACTS29 비전의 신호탄이 되었던 알바인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미주온누리는 꿈을 포함하여 13개의 비전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비전, 평신도를 능동적으로 세우는 비전,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에 의해 세워진 미주 온누리비전교회는 좀 더 효과적이고 연합된 선교사역을 위해서 2006년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America 이하 TIMA)를 세우기로 결의하였습니다.

TIMA는 서울 온누리교회와 미주온누리비전교회를 선교적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중남미와 미전도종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민족의 땅끝 북한과 전략적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진진 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역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비전, 평신도를 능동적으로 세우는 비전,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으로
세워진 미주온누리 교회는 13개의 비전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되는 선교

13개의 미주비전교회는 각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이미 다른 나라 같은 꿈이나 앵커리지, 캐나다에 있어서 미국의 여러 비전교회와 상황이 다른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있기도 하고, 뉴욕 IN2 온누리나 산타모니카 온누리처럼 청년/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필

요합니다. 선교적으로 TIMA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온누리 파송 TIMA 선교사를 함께 지원하며 하나되는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온누리교회와 같이 Why Mission?을 통해 내 삶에서 선교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고 온누리선교의 방향성을 성도들이 이해하고 찾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교컨퍼런스, 선교 세미나 등 다양한 선교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주비전 교회 안에 건강한 선교의 힘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이티 어린이 사역

TIMA는 온누리의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함께
선교의 힘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또한 TIMA는 온누리의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함께 선교의 힘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에는 미주 두란노, 라틴 두란노, 미주CGN TV, 더 멋진 세상 미주지부,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BEE AMERICA 등 선교적 연합이 가능한 여러 온누리 기관들과 선교단체들 그리고 중남미 현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TIMA는 이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중남미 현지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라틴두란노를 비롯해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중 영어와 스페인어가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온누리 선교의 정신과 비전을 공유하고 헌신하게 함으로써 중남미에 지속 가능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이티 기술학교 졸업 여성들

전략적인 선교

서울 본부에서는 전략적 팀구성을 통한 선교(ST)를 선포하고 그에 맞는 방향적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TIMA에서도 전략적 선교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는 사람들을 동원하며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선교전략적인 측면에서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도 온누리의 기존 사역지인 멕시코 미헤족과 따라후마라족, 니카라과, 도미니카, 아이티, 쿠바 등에 대한 선교적 방향을 고민할 것입니다.

서울 본부에서는 전략적
팀구성을 통한 선교를 선포하고
그에 맞는 방향적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인 미헤족에는 기존 1,000여명에 달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재양육하였습니다. 이제는 현지인 리더십들로 말씀 사역이 이양되었으며, 따라후마라족에는 서울 온누리와 미주 온누리의 후원으로 교회와 셀터가 세워져 사역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니카라과의 크리스찬 아카데미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좋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지속한 까라조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이제 막 시작된 까모아빠의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할 것입니다.

2010년 지진 이후 성도님들의 헌금과 관심 그리고 기도로 지속된 아이티 사역과 중남미 좌파정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하는 쿠바는 선교제한국가이기 때문에 현지 교회를 돕고 세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함께 올바른 성경적 복음과 가치관이 심겨지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남미에도 전략적 접근 지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본부와 현장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새롭게 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준비하는 선교

TIMA는 미주와 중남미 선교현장을 연결하면서 미주지역의 선교동원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남미 약 5억이 넘는 인구의 영적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중남미 한인 1.5세와 2세를 선교적으로 동원하는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남미 한인 교포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복음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선교사 혹은 목회자로 헌신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TIMA에는 이들에게 큐티와 일대일을 통한 제자양육과 CGN TV와 함께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인 1.5세와 2세 사역자들과 중남미 건강한 교회들이 온누리 비전에 연합하여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고 또 미주와 중남미 땅에서 세워진 선교자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전략적 선교지역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TIMA 중남미 선교사들의 찬양

TIMA가 설립된지 13년이 되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선교적 활동과 역할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조직과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도전하여, 온누리비전교회에는 신뢰 받는 단체로, 중남미 선교사님들에게는 지원과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복음과 십자가에 충성스런 단체로 쓰임 받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SPECIAL
ISSUE

ACTS29 VISION VILLAGE

선교훈련 학교의 변화와 도전

훈련팀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핵심적인 내용이다. 훈련팀에서는 선교의 핵심인 예배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훈련생들의 열방 예배 참여를 도모하였다. 예배의 변화는 훈련의 중요한 흐름의 변화로 이어졌고, 모든 훈련생들은 예배자로 먼저 부름 받았음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19년 또한 선교사로서의 기본 소양 훈련뿐 아니라, 열방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훈련이 시작되었다.

선교훈련의 성장, 시안채플

매일매일의 채플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씀 묵상과 개인의 영성 훈련뿐 아니라 공동체성 예배를 통한 회복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열방 예배 시간을 오전 강의 시간 안에 포함하여 강의와 예배를 같은 흐름 안에서 진행 되도록 하였고, 강사님들의 강의뿐 아니라 채플 때 말씀선포를 통해 선교적 도전이 있도록 하였다.



예배를 통한 영성 훈련은 선교훈련의 심장과 같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들이는 예배자의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열정에 다가 갈 수 없을 것이다. 시간채플을 통하여 선교사훈련이 영적인 안정감과 은혜의 사모함이 깊어져 감을 알 수 있다. 일반 성도님들과 훈련생들과 스텝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훈련의 기본이며 중심이다.

Diaspora Mission School의 본격적인 시작

이주민 5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이주민 선교는 다양한 선교적 예배 공동체 개척과 이주민 선교 운동(Movement)을 통한 이주민들이 역파송 선교에 참여(Mobilization)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러한 선교적 도전 앞에 Diaspora Mission School 훈련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급변하는 세계선교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환경의 변화는 선교훈련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TP(Turning Point) 단기선교사 훈련학교는 2018년 본격적인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선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8년 이전 TP훈련에서는 중국어권 현장의 사역자들과 함께 한국어로 훈련을 진행했었다.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에서는 선교사들이 현장의 사역자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여 진행했던 선교학교였다. 이제는 이러한 형태가 한국어가 가능한 몽골의 현장의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선교훈련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 선교적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와 같은 선교적 상황을
인식한 선교훈련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2018년 하반기 선교훈련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이중언어 선교훈련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전 선교스쿨을 준비하는 팀이 신설되어 준비에 들어갔었다. 스쿨을 준비 하면서 어려움 중 하나는 모든 강의 준비를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선교훈련은 도전을 넘어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한국 학생들과 M미션을 섬기는 파키스탄, 베트남, 몽골, 네팔, 이주민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훈련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 이들의 한결 같은 고백은 이런 훈련의 장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확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을 훈련하면서 갖게된 생각은 선교훈련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영어권 선교훈련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의 필요에 반응하는 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2020년 다중언어 선교훈련을 준비 중에 있다).

세계선교상황과 한국교계의 상황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선교 헌신자들의 감소와 노쇠화, 비자발적 입국 선교사들 이러한 상황적인 인식 속에 앞으로의 선교훈련의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와 같은 선교적 상황을 인식한 선교훈련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선교 동원 FA,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김승수 목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본부장

FA가 벌써 16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233명의 FA선교사가 파송되었고, 이번 기수인 16기에는 23명의 FA선교사님들이 지난 3월 말, 3지역으로 출국하였다. 돌아보면 FA가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써온 TIM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16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FA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

FA,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FA는 대학청년공동체에 있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자, 모든 사역의 정점에 있는 사역이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놀라운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

FA를 다녀온 청년들은 그 시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대면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FA이

후 어디에 있는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더욱 감사한 것은 FA선교사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도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고, 장기선교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들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젊음 그 하나로 그 땅의 청년들에게 거리낌없이 다가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선교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부르심이다.

이들이 미래에 단기선교사, 장기선교사의 자원이 된다는 점과 지속적인 선교 동원을 위해서 FA는 가장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대학청년 선교 동원과 개선 방향

2019년을 맞이하면서 대학청년부와 TIM은 지금까지의 FA진행과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FA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기도하며 논의해왔다. 그런 논의의 결과, FA에 대한 몇가지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로는 언어권의 다양화이다. 지금까지는 네팔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파송되어 왔지만, 선교전략적인 관점과 반복된 지역으로 인한 청년 동원의 한계로 좀 더 다양한 언어권으로의 파송이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2019년 FA사역지로 일본이 추가됨에 따라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선교지원자들을 더 발굴해 낼 수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일본에 대한 관심으로 선교지원을 했던 청년들도 여럿 있었지만, 합숙훈련을 통해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지금은 세 지역으로 골고루 인원이 배분되었다.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청년선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권으로 FA 사역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선교에 대한 동기 부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FA 동원에 있어서 한가지 문제는 매년 두 차례 FA모집과정에서 짧은 시일 내 동원과 훈련이 이어지면서, FA동원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이것을 위해 2019년에는 FA모집 기간이 아닐 때에도 지속적으로 FA소식과 모집 일정 등을 제공하며, FA현장에서의 삶

2013년 FA 4기 현장훈련 - 인도네시아





이 어떠한지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FA 현지에 영상팀과 함께 방문하여 짧은 다큐 영상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2018년 네팔 지역에서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좋은 효과를 얻었던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선교지 소개 및 선교 동기부여를 위해 대학청년부에서는 “선교지 이야기”라는 강좌를 새롭게 개설하여, 선교 사님들을 모시고 현장 선교 사역을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때, 가랑비에 옷 젖듯 청년들의 마음에 선교의 씨앗들이 심겨져 가리라 기대한다.

세 번째로는 FA를 다녀온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이다. FA의 지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FA를 다녀온 청년들이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현장훈련 동안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선교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내면적인 어려움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IM에서는 후속모임 및 상담 과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청 공동체에서도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공동

체 담당목회자들이 이들을 일대일로 만나고 목회적으로 케어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쏟고자 한다. FA청년들이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고 리더십으로 다시 세워질 때, 이들이 경험했던 선교지에서의 삶이 개인에게뿐 아니라 공동체에 선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재정후원에 대한 보완이다. 이번 16기의 경우, 전체 23명 중 허브 대학부에서만 13명의 지원자가 나왔다. 선교사로서 재정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것 또한 혼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때,
가랑비에 옷 젖듯
청년들의 마음에
선교의 씨앗들이
심겨져 가리라 기대한다

2011년 FA 1기 현장훈련 - 터키





허브공동체 FA16기의 후원자 개발과 후원금 모을 위한 바자회

련의 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후원자를 동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대학부라는 점이다. 대학부 한 공동체에서 13명의 선교사 후원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 FA선교사로서는 언어를 습득하고, 현지 젊은이들을 접촉하는 데 나이가 어릴수록 더 낫고 미래의 선교자원으로서 대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일정 수입이나 저축해 놓은 재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자금 대출로 팍팍한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선교 재정을 준비하거나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이 힘든 일임에 틀림 없다. 대학생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대학청년본부와 TIM, 또한 이천선교본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 하여 대학생들이 재정으로 인해 FA에 지원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 청년대학생들이 미래선교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재정 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면 FA에 더 좋은 자원들이 될 청년들이 모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FA는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100여년전 이 땅에 청년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신을 드릴 때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청년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는다. 온누리 대학청년부는 TIM, 그리고 선교본부와 함께 귀한 청년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이 귀한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가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다.



열방에서

중남미 사역현장

영적 변화, 오직 말씀으로

정진모 & 정혜진 선교사

니카라과

20





누구에게나 “Buen día” 좋은 하루를 인사하고, 헤어질 때 “Bendiciones” 하나님의 축복을 인사하는 나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구절이 적혀있는 버스와 한길 건너 들어선 교회 간판을 보자면 선교사가 없어도 될 것 같은 나라, 이곳은 중미의 니카라과입니다. 중남미 7~80%의 국가는 가톨릭을 종교로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또한 인구의 70%이상은 주종교인 가톨릭 신자이고, 기독교는 17% 정도이나, 중남미의 가톨릭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톨릭과는 달리 미신과 토속문화가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경우 이단들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남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기독교인 비율은 통계보다 낮습니다.

최근까지 여러 단체와 선교사들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성경 내용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고, 주종교가 가톨릭이기에 재교육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중남미를 다시 파악하면서, 재교육이 아닌 가톨릭과 종교화되어 있는 곳의 개혁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TGC(The Gospel Coalition,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복음중심적인 신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2005년 미국에서 창립된 기독교 연합 기구)를 선두로 중남미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시간

9살 어린 나이에 저(정해진 선교사)는 부모님을 따라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왔습니다. 편치 않은 삶, 모든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15살 사춘기 소녀를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인교회에서 건축한 원주민 교회들을 다니며 주일학교를 섬기며 자연스럽게 선교를 경험했지만, 남미에는 교육 목사님이 많지 않았기에 항상 말씀에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고, 말씀의 한 부분으로 큐티 하며 믿음을 키우셨고, 척박한 땅 남미의 영적 필요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기부터 청년기를 보내면서 에스파냐어, 라틴어, 이태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성장하며 배운 언어로, 복음을 먼저 만난 자로서 좋은 소식(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 선교가 되었습니다.

니카라과의 영적 현실

니카라과의 많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나, 말씀을 찾고 말씀의 뜻을 확인하는 것에는 게으릅니다. 예수님은 예배시간에만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연약한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돌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을 반대하고 이단으로 여기면서도,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율법적 규율과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 여기면서도, 영적인 것을 간구합니다. 모순된 믿음의 단편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순종으로 한발 한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들의 영적 성장과 제자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미 파라과이에서 말씀의 목마름을 경험했던 저는 니카라과 정착 당시 QT책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명의 삶'을 에스파냐어로 번역하여 직접 인쇄, 보급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지불하고 QT책을 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처음 300권을 인쇄했던 '생명의 삶'은 1,300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8년 4월 19일 민주화와 반정부 시위가 터지면서,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부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QT를 중단하고 '생명의 삶' 구입을 중단하는 교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부가 섬기고 있는 호산나 교회 또한 교회 리더들 중 상당수가 직장을 잃으면서, QT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쳐버릴 것이 우려된 우리는 판매수량은 중요하지 않으니, 신실하게 QT를 이어가는 성도들을 위해 판매되는 만큼만이라도 구매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신실하게 행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니카라과 교회와 성도들이 QT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공부하는 청소년들

울부짖음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의 훈련

우리 부부는 니카라과뿐 아니라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중남미에서 일대일, BEE교제를 번역, 보급, 교육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배우고,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에 도전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난 3여년 동안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을 교육하며, 말씀으로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개인과 교회가 그동안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얼마나 말씀을 무시해 왔는지, 종교적, 율법주의적으로 논하며 말씀 외의 것들을 더 중요시 해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후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은 함께 훈련하고 제자 삼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아직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에 울부짖음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서적 번역과 인쇄, 보급사역에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룹으로 제자 양육 실습하는 리더들





엘라리아 -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

엘라리아 -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곳

말씀 사역 외에도 우리 부부는 관계사역과 문화사역을 위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엘라리아-감람나무"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처럼 심이 되고, 나눔이 되며,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 성령의 열매들이 대대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역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이제 편안하게 사역하겠구나!' 생각하던 때, 카페 또한 민주화와 반정부 시위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익숙해지려 할 때, 정성스레 만들어 놓았던 것을 다 부수고, 뜯고, 이사와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 익숙한 것을 버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쫓대를 향해 전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은 날마다 도전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엘라리아'가 성도들간의 교제와 심의 도구,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망을 선포

민주화와 반정부 시위로 니카라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경제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10년 후퇴되면서, 많은 상점과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지역은 교회까지 문을 닫고 있는 현 상황에 많은 이들이 소망이 없어 떠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부부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남미 사역현장

복음의 개방을 위한 씨 뿌린 자



열방에서

차경선, 차정인 선교사

쿠바

공산주의 이념 아래 49년간 쿠바를 통치했던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한지 2년이 지난 현재, 정권이 이양된 쿠바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외화벌이를 위해 건물과 길을 보수하느라 분주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자영업과 42년만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외국인 투자도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뀌는 밝은 이면에는 외국인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집회, 가르침 등은 여전히 규제와 감시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 선교사들 또한 이민국에 불러 다니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의와 제재를 받다가 하면 추방을 당하기도 하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25

아침 등교 하는 아이들과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Yim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부부가 섬기는 산미겔 지역은 쿠바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가난한 동네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는 하나 쿠바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배급과 여러 혜택이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살던 곳을 떠나 좀더 나은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불법자들이 모인 동네가 바로 산미겔입니다. 그래서 더 질서가 없고, 문란하며 도박과 술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산미겔 교회를 중심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과 주변 지역을 긍휼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동네에 들어갈 때에는 안전을 위해 쿠바인 목사님과 늘 동행했지만, 지금은 우리 부부만 가도 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뛰어와 안길 정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아 우선 14명의 식사 비용을 우리 부부가 후원하고, 산미겔 교회 성도 두 분이 14명의 아침과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주십니다. 보통 마요네즈에 물을 섞어 바른 빵과 물에 탄 분말 우유, 그야말로 초라한 식사인데, 이마저도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하니까 암송하는 것이 아니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 암송하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는 산미겔 교회를 중심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과 주변 지역을 긍휼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산미겔 교회 목사님과 아이들





한류를 등에 업고 시작된 사역의 열매

설교 중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하신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이지만 한류가 있는 곳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므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선교가 되길...’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여러 나라 중 한 곳이 바로 쿠바입니다. 저희 가정 또한 처음 정착할 때 뜨거운 한류를 등에 업고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청년들의 출입을 원치 않아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된 후로는 섬기던 산미겔 교회에서 한국어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지역 청년들의 입소문을 타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임이 활성화 되면서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감사의 열매가 한국어 수업을 통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중인 쿠바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전면에 나서 할 수 없는 사역을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의 청년으로 변화된 이들은 ‘예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역 교회를 성경 말씀과 율동, 찬양, 놀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전부터는 교회 찬양 리더들에게 피아노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서툴지만 특별찬양 시간이나 때를 따라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전면에 나서 할 수 없는 사역을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기 부모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우리를 ‘언니’ ‘오빠’ 라고 부를 때에는 간질간질할 때가 많지만, 믿음의 청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해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부모 마음으로 이들을 품게 됩니다.



지역 교회 아이들과 울동 중인 예사랑 청년들

하나님의 열매

공산국가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쿠바 사람들은 잘 모이고, 소문과 소식이 빠릅니다. 우리의 이동 경로와 하는 일 등 대부분의 일정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보니 감시 받는 것 같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과뿐 아니라 한국어 사역에 대한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먼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열어주길 요청했습니다. 쿠바 자매를 선생으로 세워 다양한 연령층의 30여 명과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 제일 연로하신 분이 반장이 되어 출석과 규율을 잡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부부는 수업 중 발음과 단어를 교정하는 것 외에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항과 마사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쿠바는 항상 물이 부족해서 자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체취와 발 냄새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아바나 아시아 박물관의 책임자로부터 한인 후손들의 한국어 수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는 우리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 망설였지만, 여러 번의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어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고 지난 1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이 아니기에 주님께 보낼 자들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대 보다 많은 80여명이 등록해서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중 한 분은 판사로 재직 하던 시절, P국 대사관과 몇 년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업 중 그 곳 억양과 단어를 쓰다 보니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어 부부가 발음과 단어를 고쳐 주고 있습니다. (이 먼 땅에서 외국인으로부터 P국의 말을 접하는 상황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사랑’ 팀 중 10여명은 장소를 옮겨 한인 후손들과 수업 중에 있습니다. ‘예사랑’이 이 곳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교제를 통한 전도의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일상 속 감사

매일 만나야 하는 친구들과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들은 꼭 식사 때를 맞추어 약속을 잡거나 집으로 찾아 옵니다.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요리하기도 하지만 밖에서 식사 대접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부부의 재정에 상관 않고 디저트와 후식까지 마음껏 먹는 이들에게 가끔 속 좁게도 얄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과 교제하면서 현실과 상황을 알고 이해하면서는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요즘은 밀가루 파동으로 주식인 빵을 구하기 힘들고, 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달걀 구입이 힘들어 한 달 째 구경하기가 힘들지만, 없는 것에 익숙한 탓일까 이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함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던 모습을 날마다 되돌아 보며 이들을 통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을 펼치지 못해 답답하기까지 한 이 땅의 현실에서도 필요에 따라 현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까지 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쿠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기도제목

1.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님께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2. 한국어 교실과 음악 교실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3. 아이들과 공홀 사역에 부족함이 없고, 동역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4. 매 해 학생비자가 잘 연장되고, 부부의 안전과 영육이 강건하도록



선교적교회 코칭 워크샵에 다녀와서

윤정노 선교사
TIM 총무(기획동원, 지원관리)



선교적교회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TIM이 앞으로 온누리교회와 지역교회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더욱 잘 동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첫 시간을 맞이하였다. 또한, “선교적교회”라는 말과 “코칭”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대감이 있었다. 3일간의 워크샵은 세 분의 강사 선교사님들로부터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듣고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도 하고, 단기 선교 여행도 가며,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정착 지역교회들은 선교지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선교의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워크샵의 목적은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해답을 주거나, 이들이 적절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코칭하며,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뜻있는 코치”들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 워크샵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지역교회가 안고 있는 선교에 대한 많은 문제들은 건강한 선교단체와 충분한 협력과 교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지역교회가 체질적으로 선교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건강한 선교단체란 어떤 선교단체를 말하는가? 손창남 선교사님은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
- ① 선교사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현장 조직이 있는가?
 - ② 현장의 조직이 선교사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가?
 - ③ 선교단체 본부는 현장 조직의 리더를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 선임하는가?
-



사랑하는 자식을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보낼 것인가?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보낼 것인가? 우리가 신입선교사를 현장에 보낼 때에, 책무의 관점에서 이끌어 주고,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도록 코칭해 줄 수 있는 현장의 조직과 리더를 “선생님”에 비유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지역교회들이 볼 때에 건강한 선교단체인가? 우리는 지역교회들을 동원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건강한 선교단체로 준비 되어지고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3일의 시간을 보냈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먼저, GAMP(General Accepted Missional Principles)라는 새로운 이니셜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교의 원리, 사역 철학을 말한다.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교의 원리들을 따르고 있는가? 예를 들어, 선교사역의 궁극적 성공은 무엇인가? 선교사가 떠나도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 선교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이것을 GAMP중 하나라고 한다면,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떠날 계획인 “출구전략”을 세우고,

선교사역의 궁극적 성공은 무엇인가?
선교사가 떠나도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 선교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그것에 맞추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지에 선교사가 더 체류하고 더 필요한 구조로 사역을 몰아가고 있는가? 사실 선교사가 구실을 만들기만 한다면,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교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선교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의 일반 원리에 역행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듯이 GAMP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의 일반 원리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선교현장은 과연 이러한 원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으며, 이것이 옳고 성경적이고, 따를만하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많은 지역교회는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하는 특별한 사역이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자체가 선교적으로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좀 더 총체적인 선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모든 성도가 선교할 수 있고, 그것은 어쩌면 내 집 앞부터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려면, 선교를 어떤 행동이라기 보다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행동을 비롯한 모든 인격이 포함되어진다. 그 때에 우리의





선교는 좀 더 본질적이 될 수 있으며 성숙해 질 수 있다. 또한, 지역교회가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파송 선교사가 책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한 선교단체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송 교회는 선교사가 건강한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현장조직을 통해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선교적 성경읽기를 통해 지역 교회가 선교적으로 깨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와 성경의 구석 구석에 나타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찾아내지 못한다. 성경의 일부 구절만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고 가르침으로서 지역교회가 매 주일의 설교와 일상의 가르침을 통하여 선교에 눈을 뜨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어떤 특정 구절이 아닌, 전혀 선교적이지 않을 것 같은 구석 구석의 성경 구절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야 하며, 그렇게 지역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역교회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건강한 동역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야 하며, 그렇게 지역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를 비롯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식견을 갖춘다면, 우리는 훌륭한 선교동원가로서 선교라는 소중한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9년 상반기 단기선교사 훈련간증 선교로의 초대

김혜진 34기 훈련생
캄보디아



TP 훈련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여 밤이 돼서야 일정을 마무리하다 보니 생각한 것 보다 시간이 더욱 빠르게 지나간 듯합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은 긴장감 반, 기대감 반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훈련 생활과 동기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룸메이트 자매와는 잘 지낼 수 있을까, 조원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등의 여러 가지 물음들이 오리엔테이션 첫날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은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이 동기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습관과 관계는 연습하면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 라이프 맵핑을 통해서 서로의 삶과 각자를 이끈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상대방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면서 긴장감과 경계의 벽이 많이 허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큐티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동안 큐티를 통해 자기 목상을 많이 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큐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의식적으로 고정하는 것,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큐티는 이제 더 이상 부담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 강의들은 카메룬에서의 2년간 시간이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끊임 없이 이에 대해 감사를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인관계기술과 자기이해, 타문화 이해, 영적 전쟁 강의를 들 때마다 카메룬에서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론을 배우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주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해봅니다. 하나님과 선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규칙적인 삶의 모양을 얻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저를 초대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한 주 내내 들었습니다. 훈련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저를 왜 택하셨냐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교만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연약하고 별게 없는 저이지만, 제게 베푸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흘러 보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훈련을 끝내는 시점에서 훈련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과 선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규칙적인 삶의 모양을 얻었습니다. 이제 단기선교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지속적인 반응만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불품없는 나에게 찾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앞으로도 변화시켜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본국 선교사 본부 사역 간증 가족이 되는 시간

김단비 선교사
튀니지



제가 생각했던 본부사역 중 하나는 TIM 사무실 안에서 새로 바뀐 지역팀장님, 간사님들과 많은 교제를 할 수 있겠다는 것과 차기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사역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본부사역과는 달리 새로운 프로그램과 제가 알던 기간보다는 짧은 일정으로 본부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QT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CC(Care Committee)회의를 비록 참석하진 못했지만, 매뉴얼 교육과 각 사역팀 소개 등을 통해서 본부의 행정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여러 후원자님들과 통화하며 선교사들을 대신해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고 울었다는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누리 선교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보니 저는 본부사역이 OSOM훈련 같은 선교훈련이라 생각해서 뭔가 사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긴장도 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가족 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쑥스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합니다. 이 간증도 제 인생에 있어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이번 본부사역에 함께 한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해주셨고, 훨씬 오래 사역하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첫 Term 사역을 마치고 온 우리 부부의 이야기들을 경청하시며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시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 좋고 분위기 메이커이신 선 선교사님
신중하고 순수하신 허&안 선교사님
솔직하고 지혜로우신 김&배 선교사님과 예쁜
진아

겸손하고 열정 많으신 박&신 선교사님
진지하고 뜨거우신 한&홍 선교사님
차분하고 보화 같으신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섬겨 주신 본부
스텝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 선교사 본부 사역 간증 영적 채움과 힘, 격려와 위로의 시간

김한수 선교사
캄보디아



5년 간의 사역을 마칠 때쯤 말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빠르게 쉴 틈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무겁게 느껴졌던 걸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본부 사역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본국 사역을 시작하며 바로 본부 사역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주변의 의견들도 있었지만, 육체적인 힘보다도 저에게는 영적인 채움과 힘이 더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이전 본국 사역에 대한 평들이 저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습니다.

본부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감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먹을 것과 지낼 곳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두 가지는 제법 큰 비중과 부담으로 찾아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숙소시설은 저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 진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둘째 감사는 대선배이신 선교사님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선교 훈련 중 TFO를 할 때 저희를 보살펴 주셨던 박일구 선교사님 부터 중국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선배 선교사님까지! 그분들과 한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거뜰히 이겨낸 승리자들이기 때문이었지요. 함께하는 큐티 시간,

저에게는 영적인 채움과 힘이 더 필요했습니다
본부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감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브리핑, 쉬는 시간에 나누는 간식, 아침의 인사 등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고민과 선교지에서의 수고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의 사역과 선교지에서의 아픔 등을 나누었을 때 선배님들의 격려와 위로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돌아 오셨네요!” 라는 선배 선교사님의 격려는 오랜 시간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본부의 섬세하고도 진지한 배려였습니다. 파송 전 제가 받았던 뻔뻔하고 바쁘게 돌아갔던 훈련을 예상하고 있었던 저에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본부 사역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배려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진행에 많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역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느껴졌고, 최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본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모습은 TIM의 일원이 것이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소중했던 본부사역을 마치며 마음 속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 기대감이 더 자라 2기 사역의 비전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돌아온 선교사들을 위해 시간을 쪼개 본부 사역을 준비해주신 스텝들과 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 기대감이 더 자라
2기 사역의 비전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본부에서

MK이야기

MK라 부르고, 동역자라 이해한다

MK 김신

북아프리카 M국

합

니

다

감

사

합

D

L

E

S

38

안녕하세요. 4살 무렵 M국에 와서 올 여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MK 김신입니다. 워낙 어릴 적에 와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삼 남매(저는 남동생 '익', 여동생 '인'이 있습니다)는 M국 환경에 순응하며, 현지인들 틈에서 생활했습니다. 부모님 사역으로 인해 이사를 10번은 넘게 다녀고, 현지 공립학교를 다니던 우리는 전학 또한 10번을 넘게 다녀야 했습니다. 보통은 10번이 넘는 이사와 전학을 했다고 하면 지치고 힘들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사를 한다고 하실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괜찮



저를 이런 상황들 속에서
크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요. 또 적응하면 되요!”라고 대답한 제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뒤따라가기 바빴던 공부도 어느새 다른 아이들과 비슷할 정도로 따라가면서, 저를 이런 상황들 속에서 크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동생 '의'는 지금 고2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적응하면 이사하고, 친구를 사귀면 전학 가는 생활이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가 이사하는 이유와 사역의 소중함에 대해 설명해 주신 뒤로는 그 사역에 함께하는 자로서 불만불평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가끔은 오랜 친구를 둔 사람들이 부러울 때는 있다고 하네요).



선교사의 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과 삼 남매



단기 선교팀의 통역으로 함께하다

MK의 또 다른 이름, 동역자

저는 부모님이 산 속에서 생활하는 B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같이 다녔습니다. B족은 보통 집안에 전기 콘센트는 한 두 개 밖에 없고, 물을 쓰려면 공동 수도꼭지에서 물을 길어 와야 하는 곳에서 생활합니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를 도와 통역을 하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기만 하다 가끔은 귀찮을 때가 있기도 했는데, 그럴 때 마다 부모님이 하시는 사역과 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든든한 동역자라고 불러 주셨습니다(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역현장들을 보고 체험하면서, 선교사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과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현지인들과 살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단기팀은 아버지의 사역을 보고 싶어하셨



고, 저와 동생들은 통역을 돕기 위해 동행하고는 했습니다. 산비탈 길을 몇 시간이나 가야 하는 사역지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샤워는 당연히 못 해요),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무엇보다 벼룩이 많아 한번 다녀오면 적으면 수 십, 많게는 수 백방까지 물리고는 했습니다. B족 마을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갔던 것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수련회 겸 워터파크에 가는 것도 마다하고 B족 마을을 오가던 저는 어린이, 청소년 선교사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어렸을 때는 선교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니?' 라고 물으면 저는 잘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왜 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않았던 말씀이, 제 믿음, 제 신앙이 생기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중학생이 되던 해에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여쭙보셨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선교지에서 자란 터라 배움이나 직업에 대해 다양하게 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제가 관심 있고 금방 익히는 컴퓨터를 배우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꿈은 어떤 대학을 가겠느냐 어떤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고 하시며,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제 달란트로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과 제 관심사인 프로그래밍 분야를 배우고,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반인 저는 올 9월, 한동 대학교에 지원하여 대학생활을 하며, 진로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동생 '의'는 부모님의 열정적인 모습, 현지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는 모습,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언젠가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동생 '인'이 또한 '너희가 M국에서 사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데려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커서 살아갈 때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부모님 말씀이 가슴을 적셨는지, 부모님을 이어 선교사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 삼 남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분별하여 나아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MK 겨울 소풍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첫 소풍

사라 선교사
러시아

겨울방학을 맞은 MK들을 위해 TIM에서 마련해주신 선물은 바로 롯데월드 소풍!

작년에 참여했던 첫째 다니엘과 달리 올해 초등학생이 된 둘째 사무엘은 롯데월드가 처음이었다(작년, 형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미취학아동인 관계로 형만 가는 것이 부러워 서럽게 눈물 흘리며 지켜만 봐야 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무척 기대되기도 하고, 양지 사무실에 놀러 가면 같이 곤충도 잡아주고 놀 관심 가져주어 친해졌던 간사님이 동행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함께 설레었던 것 같다.



들뜬 마음에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서둘러 롯데월드로 향한 다니엘과 사무엘!

나이에 맞춰 조가 나누어지고, 키 제한에 맞춰 여러 기구들을 탄 것을 사진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로 알 수 있었다.

이번 MK소풍이 다른 해보다 특별했던 것은 동물과 곤충을 좋아하는 사무엘의 성향에 맞춘 특별 관람이 있었다는 것!

중간 중간 동행한 간사님이 여러 사진을 보내주셔서 사무엘이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시큰둥해 보이는 표정이지만,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음을 보면서 집에서지만 함께 기뻐했다.

아이들은 다녀온 후 기구를 탔던 이야기며 식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친구들 이야기를 며칠을 두고두고 했다(다니엘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성친구 없이 이성친구들과만 다녀야 해서 무척 서운해했다). 다음에 다시 가고 싶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위. 날뻐들이 다람쥐, 친구 만들기
아래. 동갑내기 친구 길이와 누나 보라, 슬아와 함께한 시간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오가며 이동이 잦은 우리 아이들은 현지 친구들과의 깊고 지속적인 교제가 어려워져 친구가 늘 그립고 소중하다

교회와 모임에서 종종 보았던 MK들과의 만남이 아이들에겐 낯설지 않아 보였다.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오가며 이동이 잦은 우리 아이들은 현지 친구들과의 깊고 지속적인 교제가 어려워져 친구가 늘 그립고 소중하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MK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주셔서 이번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마음 써주신 TIM과 간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FA



1월 | FA 16기 홍보



1월 | FA 15기 지역 총로 입국



1월 | FA 15기 지역 총로 입국



1월 | FA 15기 지역 디브리핑



2월 | FA 16기 훈련 개강 예배



2월 | FA 16기 훈련 아침 운동



2월 | FA 16기 훈련 양화진 방문



3월 | FA 16기 훈련 수료



3월 | FA 16기 파송식

기도모임



1월 | 한남동 기도모임



2월 | 한남동 기도모임



3월 | 한남동 기도모임

선교사 파송



1월 | 정닛시, 조로이 선교사 신규파송



1월 | 새벽, 이슬 선교사 차기 지역 파송



2월 | 박성주, 노영이 선교사 신규파송



2월 | 정갈렙, 박수아 선교사 신규파송



2월 | 손진성, 황선영 선교사 신규파송



2월 | 케이럽, 조이스 선교사 신규파송



3월 | 최대옥 선교사 신규파송



세미나, 행사



1월 | 중국, 인도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모임

44



2월 | 중국, 인도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모임



3월 | 중국, 인도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모임



훈련



1월 | 2019년 1차 본부사역선교사 여는 예배



1월 | 2019년 1차 본부사역선교사 복리뷰



1월 | 2019년 1차 본부사역선교사 닫는 예배



1월 | 2019년 상반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1월 | 2019년 상반기 단기선교사 아침운동



2월 | 2019년 상반기 단기선교사 수료



2월 | 2019년 상반기 단기선교사 TST

반석교회 비전교회 소양교회 수원영락교회
영원교회(원미구) 영원교회(소사구)
예수누리교회 예수향기교회 은광교회 의정부영락교회
일산함께하는교회 일산혜림교회 진세골온누리교회
충만한교회 풍동교회 풍성한교회 하림교회 희망의교회

경기

그레이스선교교회 나눔아트센터 대군통상
라이브교회 미아영문교회 서울성원교회
소원의향구교회 승복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은평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 중앙교회 하늘소리선교회
행복한주원교회 화평교회
AM(Asian Mission) 21세기푸른나무교회

서울

송림제일감리교회 열방교회 온누리소망교회
인천청지기교회 코스무스교회

인천

충북

회남교회

전북

정읍순복음교회

전남

계산교회 성전중앙교회
완도성광교회 이읍교회



경북
시와찬미교회

부산

부산부평교회
제8영도교회

대구

대구성원교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America)
Jewish Community Center of Fort Lee,
1449 Anderson Avenu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Sam Ahn)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Hirata 3-17-3 Ichikawa city Chiba
prefecture, Japan
Tel. 81-47-378-0313